

■ (언론 동향) 2021.12.5. “전남매일” 보도

○ 주철현 의원 “무기질비료 80% 할인판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내년도 비료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기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확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농협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고 할인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20%만 부담하게 되며, 필요한 예산은 재정당국과 행안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전체 지원 규모는 내년 말에나 확정될 것이고 정부·지자체·농협의 분담률 협의 절차도 남아 있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병운 기자 >

■ (언론 동향) 2021.12.5. “글로벌e” 보도

○ 농협 국감 재구성⑩ 비료 원가장부 제출해야 입찰?...장철훈 대표의 '갑질'?

- 계통구매가 97%에도 업체들 만성적자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위해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시설자재를 '계통구매'(전국·도 단위 공동구매) 한다. 연간 2조5,000억 원 중 비료가 1조3,000억 원이다.

그 사이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량 2위 업체는 비료사업부 직원을 250명에서 190명으로 줄였다. 농협경제지주 자회사로 비료업계 1위인 남해화학도 지난해 비료부문 적자가 300억 원에 달했다.

무기질비료 시장에서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구매가 97%나 되는데 업체들의 무기질비료부문 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왜일까.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2. 6.(월)

11~12월 신청을 받아 단위농협에서 다음해 비료계통구매가 시작된다. 전문회계법인에 원가조사 용역을 맡겨, 회계법인이 원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농협은 구매원가를 정한다.

무기질비료는 경쟁입찰, 유기질비료는 수의계약 하는데 원가산출 과정에서 농협 회계법인은 입찰 참여업체의 영업비밀인 구매자료를 받고 있다.

'올며 겨자 먹기'로 자료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종류별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낙찰량을 결정한다.

대표 무기질비료 3종은 구매가가 원가보다 10~30% 낮다. 비료생산 업체들은 적자다. A사는 원가의 65%, B사는 53%에 구매가가 결정됐다. A·B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계속 적자다. 농협 마진은 10% 이상이다.

국내 무기질비료 시장을 농협경제지주가 독점하고, 업체들로부터 원자재 구매자료를 받아 구매원가를 정하고, 시장을 지배해 납품가를 결정하는 행태는 공정거래법 위반, 즉 범죄행위다.

국내 비료업체들은 5년간 적자행진이 이어지면서 1위 남해화학조차도 지난해 내수비료부문에 150억 원이나 적자가 났다.

< 윤혜정 기자 >